

研究論文

박정희시대의 '동상건립운동'과 애국주의*
-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정 호 기**

I. 머리말	V. 동상 인물의 담론과 건립 효과
II. 한국에서의 동상 건립 문화의 형성	VI. 맺음말
III. '동상건립운동'의 주체와 자원의 동원	<참고문헌>
IV. 동상의 인물과 건립 시기의 특성	<국문요약>

I. 머리말

박정희시대 중반기, 서울의 도심 일원과 수원 및 대전에는 동상(銅像) 1) 15기가 건립되었다. 세종로의 이순신 동상도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동상 건립은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단체가 주관하였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에 동상들이 조직적으로 건립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때 건립된 동상들은 단 하나도 해체되지 않고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동상은 조각가에 의해 제작된다는 점에서 보면 예술 작품이다. 그러나 동상은 다른 조형물에 비해 정치·사회적 혹은 문화적 함의가 깊숙하게 용해되어 있는 차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3-BS2005).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사회학 전공(junghghg@paran.com).

1) 동상은 과거를 기억 혹은 기념할 목적으로 제작된 조형물이다. 조상(彫像) 가운데 '똥'을 재질로 한 것을 흔히 동상이라고 한다. 인물상들은 일반적으로 동상이다. 이 글에서는 조상은 조각 일반과 조칙의 명칭에서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동상으로 명명하였다.

별성을 지닌다. 2005년 여름, 인천 자유공원에서 발생한 맥아더 동상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두 세력들 간의 충돌이 보여주듯이, 동상의 건립과 존속은 예술적 행위와 예술품의 보존이라는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4·19혁명시기 시위대의 이승만 동상 파괴, 박정희 체제에 대한 비판과 흉상 훼손, 파리코뎀에서의 나폴레옹 3세 동상의 해체,²⁾ 소련의 붕괴와 레닌 동상의 해체 등 정치·사회적 격변기에 동상은 집합행위의 대상이 되곤 했다.

동상은 기념조형물의 일종이다. 기념조형물의 건립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기에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선호되었다.³⁾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서구에서는 유사한 기념조형물들이 국가주의의 발흥과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해 대량생산되었다. 정치·사회적 담론들은 기념조형물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접 투사된다. 이는 국가, 정치체제 혹은 담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기념조형물의 건립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기념조형물은 탑과 비에서부터 대규모 건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념조형물은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체제를 막론하고 국가주의적 정체성과 통합을 위해 선호되었다. 전쟁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시켰다. 전쟁 기념물들은 외적으로는 통치와 지배의 주권을 표상했고, 내적으로는 기념물의 담론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거나 이견 표출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⁴⁾ 일반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폐쇄적이고 획일화되어 있을 때 혹은 일체화된 통합성이 요구될 때, 국가의 숭배 의식 및 공공제전과 기념조형물의 건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 파시즘체제였던 나치즘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⁵⁾

다양한 기념조형물들 가운데 동상은 시민의 일상생활공간과 공공 공간 또는 상징 공간에 배치되어 시선을 모았다. 동상은 관찰자로 하여금 경외감을 주어 거리를 두게 하면서도 인종적 혹은 민족적 동질성과 자부심을 갖게 한다. 동상은 부가된 서사를 굳이 독해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에는

2) Harvey, D./김병화(역),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생각의 나무, 2005), 419, 466 쪽

3) Hobsbawm, E./박지향·장문석(역), 『만들어진 전통』(휴머니스트 2004), 510-513 쪽

4)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휴머니스트, 2005), 192~203쪽.

5) Mosse, George L.,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Political Symbolism an Movements in Germany from the Napoleonic wars through the Third Reich*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pp. 42~72.

군주나 성자의 동상이 주로 건립되었으나,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면 과거와 현재 속에서 발굴된 충신과 국가적으로 영웅화된 일반인들의 동상이 건립되었다.⁶⁾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는 동상과 기념미술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갈등을 국가 정체성으로 융화시키고, 식민지 개척 전쟁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 하면서 죽음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었다.⁷⁾

동양으로 전파된 동상 문화도 동일한 정치·사회적 맥락에 놓여졌다. 동상 문화를 가장 빨리 수입한 일본은 유럽과 미국으로 파견한 사절단을 통해 역사나 전통이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⁸⁾ 역사와 전통의 일체화로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는 영웅이 필요함을 파악했다. 영웅들은 시민의 일상생활공간에서 동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⁹⁾ 이는 일본 최초로 건립된 동상의 인물이 군주나 신이 아니라, 고대사에 등장하는 영웅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¹⁰⁾ 1911년에 이르면, 동경의 주요 지점들에 수많은 인물상들이 건립되어 있었다. 일본에서는 동상 건립에만 그치지 않고, 인물의 활동과 건립 위치 등을 담은 '교토동상노래(東京銅像唱歌)'를 창작하여 보급할 정도로 상당한 애착을 보였다.¹¹⁾

중국도 이와 유사하다. 1903년 미국으로 건너가 화교사회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파하고, 미국사회를 관찰했던 양계초가 쓴 기행문인 「신대륙유기(新大陸遊記)」에 동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는 독립전쟁 때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민병대가 영국군과 첫 전투를 한 벙커힐(Bunker Hill)에 세워진 기념물과 전사한 민병대 지도자의 동상을 통해 당시의 얘기를 전해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¹²⁾ 이 기념물과 동상에 담긴 담론은 그의 애국주의론의 성립에 기여했다.

대만에서는 1903년 원산공원(圓山公園)에 건립된 미즈노 준(水野遵)¹³⁾의 인물

6) Fujitani, T./한석경(역), 『화려한 군주: 근대 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이산, 2003), 194쪽.
 7) Miles, M./박삼철(역), 『미술 공간 도시』(학고재 2000), 115 쪽
 8) Jansen, M. B./장화경(역), 『일본과 세계의 만남』(소화, 2004), 91쪽.
 9) 1893년에 도쿄에 건립된 최초의 동상은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세워진 근대적 군대의 창설자이자 메이지유신의 공로자인 오무라 마스지로(大村益次郎)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일본에서는 ‘조상광증(statumania)’의 바람이 불었다. Fujitani, 앞의 책, 41, 166쪽.
 10) 1877년 가나자와(金沢)의 겐로쿠엔(兼六園)에 건립된 아마토 다케루미코토(日本武尊)의 인물상이 그것이다. 湯本豪一/연구공간 수유+너머(역), 『일본 근대의 풍경』(그린비 2004), 81 쪽
 11) 石原ばんがく, 『東京銅像唱歌』(文盛館 1911).
 12) 吉澤成一郎/정지호(역), 『애국주의의 형성』(논형, 2006), 20~25쪽.

상이 최초의 동상이다. 그는 일본의 대만 식민화에 있어서 주역이었다. 이로부터 10여 년 만에 현재의 타이베이 충효(忠孝) 서로(西路)와 중산(中山) 북로(北路) 입구에는 수많은 동상들이 세워졌다. 대만을 접수한 장개석 정부는 일본인 동상들을 파괴하고, 공자, 손문, 장개석의 동상을 대대적으로 건립했다.¹⁴⁾ 특히 1949년부터 장개석의 동상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의 사후에 많은 동상들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5,000여 개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 엄청났다.¹⁵⁾ 장개석의 동상은 통치자가 일상생활공간 곳곳에서 시민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인지시키는 자기 검열과 억압의 수단이었다.

그동안 동상은 예술과 환경 관련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들은 특정한 조각가의 작품들을 정리하고 미적 평가와 변화를 추적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혹은 역사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다소 다른 관점에서 동상을 고찰한 것들은 평론이나 술회 혹은 대담을 정리한 글들이다.¹⁶⁾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윤범모의 글과 심정수의 논문은 동상을 정치·사회적 관계와 목적이 투사된 것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예술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관점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1990년대 말 이후에는 동상에 대한 두 가지 연구 경향이 생겼다. 하나는 동상을 포함하여 국가적 기념사업 전반을 사회과학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들은 대부분 박정희시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¹⁸⁾ 이

13) 그는 총독부 민정국장으로 타이베이(臺北城)를 접수한 사람이다. 청나라가 일본에 대만의 양위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고현영(辜顯榮)은 미즈노 준을 찾아가 타이베이를 접수하여 폭동을 평정해달라고 부탁했다. 고현영은 1900년에 미즈노 준이 사망하자 사비로 동상을 건립하였다. 陳柔縉, 『臺灣西方文明初體驗』(麥田出版 2005), 150~151 쪽

14) 위의 책, 153 쪽

15) 박강배, 「타이완 사람들의 기억과 기념」,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5·18 연구소 2005), 236 쪽

16) 《공간》 1977년 7월호에 「특집 어설픈 모뉴망 서울의 동상」이라는 제하로 실린 글들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서울의 도심에 건립되어 있던 동상들을 조경, 의미,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17) 윤범모, 「기념조각, 그 문제성의 안팎」, 《계간미술》, 봄호(1980); 심정수, 「현대 한국기념조각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1).

18)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책세상, 2003); 이수인, 「박정희 체제의 국가주의 담론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 연구』, 제7호(한울 2005).

연구들은 국가적 기념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크게 부각된 이순신과 세종의 사례를 주로 다루었다. 이 연구들은 박정희시대의 국가적 기념사업들이 어떠한 배경과 목적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설파하려는 담론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고찰하였다. 한편 박정희 정권의 동상 건립 문화가 지역과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¹⁹⁾ 다른 하나의 흐름은 동상에 직접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미술사 전공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상이 지닌 정치·사회·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분석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²⁰⁾

위의 연구들은 차이는 있으나, 본 논문의 대상인 박정희시대에 이루어진 '동상건립운동'을 종종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 전반을 하나의 분석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박정희시대에 이루어진 국가적 기념사업들 가운데 한 사례로 다룬다. 또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국가적 기념사업의 초점이 된 특정 인물들 위주로 고찰하고 있어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박정희시대에 이루어진 '동상건립운동'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지점들은 '동상건립운동'을 주도한 주체의 구성적 특성, 소요 자원들의 동원, 동상이 건립된 인물과 건립 시기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어서 '애국주의'라는 관점에서 동상에 투사된 담론들을 검토하고, 이 운동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동상건립운동'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입하려는 담론들의 지향을 '애국주의'로 정의하였다. 이는 이 운동을 추진한 조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국'이라는 용어를 통해 담론들을 집대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시자와 세이치로(吉澤成一郎)의 견해²¹⁾와 같이 "민족, 국수(國粹), 국가, 국민의 보전과 진흥을 주장하는 움직임"을 모두 애국주의로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현선의 연구²²⁾에서도 애국주의를 가장 큰 담론으로 설정하고, 군사주의, 영웅주의

19) 신은제, 「박정희의 기억 만들기와 이순신」, 『현대의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세종출판사 2006).

20) 조은정, 「한국 동상조각의 근대이미지」, 『한국근대미술사학』 제9집(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1); 박계리, 「충무공동상과 국가이데올로기」,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2집(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4); 조은정, 「이승만 동상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4집(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5).

21) 吉澤成一郎(정지호(역)), 앞의 책 45 쪽

반공주의 그리고 국가주의를 하위 담론들로 세분하고 있어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 및 신문 조사에 비중을 두고, 면접 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문헌 자료는 잡지와 논문 등에 게재된 동상을 주제로 한 글들이었다. 그러나 ‘동상건립운동’이 전개되던 당시에 작성된 글들은 매우 적었고, 이 운동이 종료된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 운동은 실제로는 정부가 주관했으나, 외적으로는 독립된 조직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생산된 자료가 오래 보존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자료는 이 운동을 주도한 언론사가 발행한 신문과 그 외에 다른 중앙 신문들이었다. 면접 조사의 대상자는 이 운동이 전개될 당시 《서울신문》의 문화부 기자와 동상 건립에 관련된 인물들을 잘 알고 있는 미술학과 교수였다.

II. 한국에서의 동상 건립 문화의 형성

일제하 조선에는 50여기 이상의 동상이 있었다.²³⁾ 동상들이 위치한 곳은 대체로 학교 혹은 도심의 특정 장소였다. 동상의 인물들은 조선인이 많았으나, 서양인, 일본인도 있었다. 서양인은 종교, 교육, 의료 부문 종사자들이었고, 일본인은 교육자와 군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인은 대부분 근대의 인물로 이와 유사한 분야의 종사자들이었다. 동상 제작자들도 조선인이 많았다. 동상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조선인 조각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등장한 동상 건립을 위한 활동은 이러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가능했다. 가장 먼저 동상의 인물로 거론된 이는 안중근이었다. 안중근은 일제하 독립운동가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었으므로 최우선으로 거론되었다. 이 사업은 1946년 1월에 시작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김구와 이승만 등이 참여한 ‘애국지사 기념관 및 동상 조성계획’으로 수렴되었다.²⁴⁾ 그렇지만 이 계획은 해방 정국의 갈등과 대립으로 중단되었다.

22) 김현선, 「애국주의의 내용과 변화」, 『정신문화연구』, 제25권 2호(2002), 180쪽

23) 조은정, 앞의 논문(2001), 234-235쪽

24) 최열, 「20세기 전반기 근대 조소예술의 전개」, 『근대를 보는 눈(삶과 꿈 1999)』, 118쪽

두 번째로 동상을 건립하려 한 인물은 이순신과 세종이었다. 오랜 식민지를 경험한 신생국 한국의 통치자들과 지배집단들에게는 더 광범위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순신과 세종은 일제하에서도 조선의 역사공동체와 문화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 선호되었던 인물들이어서 최적이었다.²⁵⁾ 이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1948년과 1949년에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적극적 참여자들의 다수는 친일 및 반민족적 미술 활동을 했거나 가담한 사람들이었다.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부산과 진해에 이순신 동상이 건립되었던 것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전시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이순신이 부합했던 것이다.

동상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적지 않게 건립되었다. 1945년부터 1969년 사이에 제작된 기념조형물의 목록은 조상, 동상, 부조 등이 몇몇 작가들의 독식 하에 계속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²⁶⁾ '1954년 전후로 동상을 비롯하여 기념조형물의 건립이 붐을 이루었다'고 할 정도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약 150점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하였다.²⁷⁾ 이처럼 동상 건립 문화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참가한 제작자들은 소수였으나, 동상 건립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²⁸⁾ 같은 해 두 잡지에 실린 글들은 동상이 너무 적다는 것과 많은 동상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다는 것으로 논조가 서로 다르다.²⁹⁾ 그러나 결론은 동상이 건립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사적 인물들이 그 대상

25) 《동아일보》는 1930년대 중반에 '조선의 역사적 위인의 문화유적에 대한 고적보존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순신, 권율, 단군, 을지문덕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지윌 「파시즘기 민족주의자의 민족문화론」,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231~233쪽

26) 최태만, 「해방 후 한국 조소예술의 전개와 현대로의 전이」, 『근대를 보는 눈(삶과 꿈 1999)』, 176~182쪽. 최석태는 윤희중을 '수없이 많은 동상 건립과 충훈각 공사 과정에서 커다란 치부를 해서 대저택을 사들이고 젊은 작가들에게 경제력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최석태 「윤희중」 『청산하지 못한 역사 1』(청년사, 1994), 340쪽

27) 김영나·홍선표, 「해방 이후 한국현대미술사 전개」,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7: 문학·예술』(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한국학술진흥재단 2003), 179쪽

28) 동상 제작자는 국전의 심사위원급의 지위를 가진 소수였다. 이를 수주한 조각가들은 기업화되어 젊은 조각가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경성, 「미술 60년의 문제들」, 《신동아》, 1968년 10월호, 327쪽.

29) 작자미상, <선각·위인의 동상을 많이 세우라>, 《주간 희망》, 1958년 5월 16일자; 김성식, <동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상은 ‘국민의 형성과 통합을 위한 문화적 기초’를 마련하는 수단들 가운데 하나였다. 해방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정부 수립,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안정화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사회적 격동기는 성스러운 인물과 장소, 의례의 개발과 홍보를 요구했다.³⁰⁾ 이 시기에 국가적·사회적 숭배 대상이 된 인물들은 대체로 근대를 살았던 인물들로 독립운동, 학교 건립자, 외국인, 전쟁영웅 등이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이승만의 동상만 사회적으로 조명되었고, 다른 인물들의 동상 건립에 국가가 직접 관여한 경우는 적었다. 이승만 정권은 동상 건립보다 한국전쟁 기념물과 추모시설의 건립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반면에 박정희 정권은 국가 주도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다.³¹⁾ 박정희시대의 국가적 기념사업들은 5·16 군사쿠데타(이하 ‘5·16’)의 정당화, 근대화화 경제발전, 민족주의, 반공과 통일 등의 이념에 토대하여 확고한 총화단결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국가적 기념사업은 격변 혹은 위기 국면에 또는 직후에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테면 5·16 직후에 추진한 3·1운동, 한국전쟁, 4·19혁명의 기념탑 건립 및 기념사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고,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국가적 기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³²⁾ 아울러 1968년에 출범한 문화공보부의 주관으로 추진된 유적지 정화사업 또는 성역화사업도 이에 해당된다.

서울 도심에는 ‘동상건립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에 인물상들이 건립되어 있었다. 1964년 제3주기 ‘5·16’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청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중간녹지대에 석고상 37점을 서울대(12점), 이화여대(8점), 홍익대(12점), 서라벌대(5점) 학생들을 동원하여 세웠던 것이다.³³⁾ 이 사업은 김종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국회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³⁴⁾ 석고상의 인물은 정부가 임의로 선정했을

상사태(銅像沙汰)», 《사조》, 1958년 8월호

30)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백산서당 1999), 220~249쪽

31) 은정태,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 연구』 제5호 역사비평사 2005), 251~252쪽

32) 박준성,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을 찾아서(1)」, 『내일을 여는 역사』 제23호(2006).

33) 《서울신문》, 1964년 5월 14일자

것이다. 서울 도심에 석고상이 건립된 시기는 박정희가 민정불참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첫 해였고,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어 정치적 안정이 요구되던 때였다. 석고상의 건립 목적이 “민족정기의 양양과 애국 정신을 고취하고 선현에 대한 추모이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III. '동상건립운동'의 주체와 자원의 동원

‘동상건립운동’은 ‘5·16민족상’ 산업부문 수상자인 풍전산업 사장 이한상(李漢相)이 상금 50만원을 서울신문사에 기탁한 것에서 발단했다. 그는 기탁금을 위의 석고상들을 보수하는데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³⁵⁾ 석고상들은 재질의 특성상 불과 2년 만에 10여기가 파손되어 철거된 상태였고, 잔여 작품들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제21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³⁶⁾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그해 7월 20일까지 석고상을 모두 철거했다.³⁷⁾ 예기치 못한 상황과 성금의 사용처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애국선열조상건립’이었다.

‘동상건립운동’의 추진 조직인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와 17명의 위원 명단은 제21주년 광복절 날에 공개되었다.³⁸⁾ 위원회는 서울신문사의 주관 하에 학계 및 공무원, 일부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구조, 즉, 민관 공동 추진체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서울신문사 이사였고, 위원으로 선임된 공무원들은 고위직이기는 했으나 관련 부처의 최고 결정권자는 아니었다. 이러한 점들은 ‘동상건립운동’이 초기에는

34) 석고상의 건립은 ‘예술적 식견을 갖고 있던 김종필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다양한 서구의 문화 정책과 모뉴먼트(monument), 영웅의 기록화 등을 관람한 것에서 착안하여 국민들의 국가관 형성과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사회 교육적 방법으로 추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구열 면접조사 2006년 7월 24일 박계리, 앞의 논문(2004), 160 쪽에도 이 점이 언급되어 있다.

35) 《동아일보》, 1968년 5월 11일자

36) 《한국일보》, 1966년 8월 14일자

37) 《중앙일보》, 1966년 7월 21일자

38) 《서울신문》, 1966년 8월 15일자

큰 힘을 갖고 시작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위원회 구조와 구성원이 바뀌면서부터였다.³⁹⁾ 조직이 확대되고, 5개의 분과위원 체제로 편성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⁴⁰⁾ 그리하여 총재와 부총재라는 직책이 생겼는데, 공화당 의장 김종필과 서울신문사 사장 장태화⁴¹⁾가 맡았다. ‘5·16’의 주역들이 ‘동상건립운동’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한편 위원장에는 주택공사 총재 장동운이, 상임위원에는 서울신문사 상무 정성호가, 상임간사에는 한교택이 임명된다. 출범 당시보다 훨씬 큰 권력과 지위를 지닌 사람들로 위원회가 재구성되었다. 출범 초기의 위원들은 대부분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위원회의 구조는 이 운동의 종료 시까지 바뀌지 않았다. 김종필은 1968년 초반까지 초대 총재로 활동했고, 제2대 총재에는 장태화가 선임되었다.⁴²⁾ 김종필의 총재직 사퇴는 1968년 5월 25일에 발발한 ‘국민복지회’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다. 박정희는 공화당 김용태 의원 등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김종필을 옹립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철퇴를 가했다. 김종필은 이에 항의하여 일체의 공직에서 사퇴했고, 공화당의 실권은 반김종필 세력인 이른바 ‘4인 체제’에게 넘어간다.⁴³⁾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쌍용그룹의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인 김성곤이다. 김종필이 총재직을 사퇴한 다음 해에 건립된 김유신 동상의 비용을 김성곤이 부담한 점은 세력관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동상건립운동’과

39) 서울신문사편찬위원회, 『서울신문50년사』(서울신문사, 1995), 365쪽과 박계리, 앞의 논문, 160쪽에는 이 조직이 출범할 때부터 김종필이 주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1966년 8월 15일자에 발표된 위원회와 대조하면, 이는 재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0) 박계리는 위원회가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김종필에 의해 출범했고,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했는데 박정희의 의견이 관철되는 시점은 이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41) 장태화는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정희와 김종필을 만나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5·16’에 가담한 민간인이다. 노영기, 「5·16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선인, 2004), 149쪽

42) 윤범모는 앞의 글, 84쪽에서 김종필이 총재를 사직한 시점을 1970년으로 기재했으나 《서울신문》1969년 8월 9일자 “울곡 동상 제막” 기사에 의하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1972년에 제2대 총재로 신범식이 부임한 것은 서울신문사 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신범식은 박정희의 총애를 받은 인물로 1965년에 공화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이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되었다. 그는 ‘동상건립운동’ 초기에 관련 부서인 문화공보부의 장관이었다.

43) 김일영, 「1960년대의 정치지형 변화」,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백산서당 1999), 348쪽

김종필의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71년 6월에 김종필이 국무총리에 임명되고, 같은 해 10월 2일 이른바 '항명파동'으로 '4인 체제'가 몰락한다. 그리하여 김종필은 1972년 5월에 건립된 동상 제막식의 주빈으로 참석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총5개로 구성되었는데,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 명이 임명되었다. 44) 전문위원회는 동상의 제작과 건립을 담당했다. 김경승이 위원장이었고, 김종영, 김세중, 송영수, 김정숙 등이 위원이었는데 45) 이들은 이화여대, 서울대 홍익대 미술 관련 학과의 교수들이었다. 기획분과위원회는 인물의 선정과 재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국립박물관장 김재원이 위원장이었고, 위원으로 김상기, 김원룡, 유흥렬, 조성옥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문화재, 사학, 고고학 관련 교수와 주무 공무원들이었다. 재정분과위원회는 경제적 재원의 마련을 임무로 했다. 이양구(동양시멘트 사장)가 위원장이었고, 기업체의 사장 또는 실권자들이었던 이동준, 이한상, 조홍제, 김기택 등이 위원이었다. 건립분과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경승의 친형인 서양화가 김인승이, 위원으로는 김수근, 차일석, 임영방 등이 임명되었다. 차일석 이외에는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들이었다. 선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춘성이, 위원으로는 이원우, 조성옥, 김수근, 정성호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수, 서울신문사 소속 인사들이었다.

이 운동이 종료 때까지 20여 명의 위원들이 교체되었다. 새로 선임된 위원들 가운데 박중홍이 있었다. 그는 서울대 교수로 국민교육헌장 초안 작업을 했고, 1970년 10월부터 1975년 12월까지 대통령교육문화담당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46) 한편 일제하에서는 검열관 출신 경찰이었고, 1965년부터 1972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성균도 1971년에 위원으로 참가했다. 이러한 점들은 박정희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동상건립운동'의 이념 혹은 담론으로 직접 관철될 수 있는 인적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44) 윤범모, 앞의 글, 45쪽.

45) 김경승과 김영중, 윤희중은 동경미술학교 졸업생들이다. 김세중과 송영수는 김종영의 제자들이고, 김정숙은 윤희중의 제자이다. 동상 건립을 주관했던 김경승의 친일 경력과 권력 지향성에 대해서는 최석태, 「김경승」, 『청산하지 못한 역사 1』(청년사, 1994), 342~352쪽을 참조.

46) 김석수, 「국민교육헌장의 사상적 배경과 철학자들의 역할」, 『역사문제연구』, 제15호(역사비평사 2005), 106쪽.

<표 1>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동상 건립 내용

제작시기	동상명	제작자	헌납자	건립 위치
1968. 4. 27. 1968. 5. 4. 1968. 5. 11.	이순신 세종 사명당	김세중 김경승 송영수	박정희(대통령) 김종필(공화당 의장) 이한상(풍전산업사장)	세종로 덕수궁 중화전 앞 장충단 공원(남산공원으로 이전)
1969. 8. 9. 1969. 8. 16. 1969. 9. 23. 1969. 10. 14.	이이 원효 김유신 을지문덕	김정숙 송영수 김경승 최기원	이양구(동양시멘트사장) 조중훈(한진상사사장) 김성곤(국회의원 쌍용그룹 창 업주) 김창원(신진자동차사장)	사직공원 효창공원 서울시청 앞(1971년 남산 어린이 놀이터로 이전) 제2한강교(1981년 10월 서울 어 린이대공원으로 이전)
1970. 10. 12. 1970. 10. 14. 1970. 10. 16. 1970. 10. 20. 1970. 10. 20.	유관순 신사임당 정몽주 정약용 이항	김세중 최만린 김경승 윤영자 문정화	최사문(대한통운사장) 이학수(고려원양어업사장) 정주영(현대건설회장) 박영준(진흥기업사장) 구자경(럭키화학사장)	남대문 뒤(1971년 장충단 이전 이후 남산공원으로 재 이전) 사직공원 제2한강교(양화대교 입구 녹지패 남산시립도서관 앞 남산시립도서관 앞)
1972. 5. 4. 1972. 5. 14. 1972. 5. 23.	강감찬 김대건 윤봉길	김영중 전보진 강태성	전중윤(삼양식품사장) 최성모(대한생명보험회장) 최중환(삼환기업사장)	수원 팔달산 서울 절두산 대전체육관 앞

* 자료: 윤범모, 앞의 글(1980), 44쪽과 《서울신문》 등의 기사를 이용하여 수정·재구성함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은 바뀌었으나, 전문위원회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전문위원회는 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했다. 총15점의 동상들 가운데 이들이 8점을 제작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다른 동상 제작자들도 대부분 교수였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5점, 이화여대가 4점, 홍익대가 3점, 서라벌대가 2점을 제작했고, 김영중만 교수가 아니었다. 미술계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동상의 실제 제작자는 공개된 작가가 아니라 그의 제자이거나 문하생인 경우가 많았다. 제작자의 선정 기준은 불명확해서 치열한 로비와 외압의 의혹을 담은 잡음이 계속되었다.

동상의 건립비용은 편차가 있으나, 한 기당 2,000여 만원 정도로 적지 않았다. 제1차 년도에는 박정희, 김종필, 이한상이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

는 비용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⁴⁷⁾ 비용 확보에는 장태화의 역할이 컸다. 오랫동안 정보 수집과 공작 임무를 수행했던 그는 이 일의 책임자였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동상 건립은 '운동'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국민적 참여 방식인 성금 모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업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었다. 순순히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으나, 잘 받아들이지 않은 기업체도 있었다. 자발적이었던 강제적이었던 기업체들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된 '동상건립운동'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⁴⁸⁾ 비용을 부담했던 기업체들은 규모가 큰 기업체들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현남 기준은 아니었다. 이는 삼성, 한국화약, 대림산업, 동아그룹, 삼부토건, 극동건설, 충방그룹 등 당대를 주름잡던 기업체들의 대표자 이름이 현남자의 명단에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다.

IV. 동상의 인물과 건립 시기의 특성

위원회는 '동상건립운동'의 목적을 "우리 민족사상 불멸의 공적을 남긴 위인 및 열사들의 조상을 건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길이 선양케 하여 민족의 귀감을 삼고저 함"이라고 했다. 옛 인물들의 기념사업 혹은 조형적 현시를 통해 체제의 안정과 국민적 일체화를 꾀하는 박정희시대의 문화정책은 '동상건립운동' 뿐만이 아니었다. 이 운동을 개시한 1966년은 정부 주관으로 현충사 성역화사업이 시작된 해이기도 했다. 1967년부터는 세종의 기념사업도 추진되었다. 이 운동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전에 이미 국가 주도로 이순신과 세종의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동상의 인물과 작가 선정은 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던 1966년 8월 11일의 회의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정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그 해 11월이었다. 위원회는 11월 2일 학계·문화계·관계·교육계·실업계 인사 127명에게 인

47) 서울신문10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13 쪽

48) 공화당 재정위원장 김성곤의 비서로 '박정희 정치자금 창구'를 담당했던 이용호의 진술은 박정희 정권이 어떤 기업체에게 어떤 방식과 경로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알게 해준다. 우종창, 「박정희 정치자금 창구」 성곡 김성곤씨의 비서 '미스터 아' 24년 만의 고백, 《주간조선》 1995년 5월 4일자.

물 선정에 대한 설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 조사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전화통화자를 포함하여 총78명의 의견이 모아졌다. 설문조사는 이후에도 세 차례 더 실시되었다. 이는 동상의 인물 선정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선정 혹은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첫 설문조사로 선정된 인물은 10명으로 이순신, 세종, 을지문덕, 사명당, 김유신, 강감찬, 계백, 광개토왕, 김춘추, 윤관이었다. 이는 앞서 건립되었던 석고상의 인물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대한제국 이전의 인물들이며, 군주(3명), 무신(6명), 종교인(1명)으로 특정 부문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최종 건립된 동상의 인물들은 이와 달랐다. 처음에 비해 5기가 늘었으며, 기 선정된 인물들 가운데 4명이 제외되었다. 즉, 군주와 무신 가운데 일부가 배제되고, 문신과 학자, 여성 등의 인물이 포함되었다. 한말 이후에서도 2명의 인물이 선정되었다.

<표 2> 동상 건립 혹은 대상으로 선정된 인물

선정 시기 인물 분류	1964년 5월 건립된 석고상의 인물(37명)	1966년 11월 선정된 동상의 인물(10명)	1972년 5월 최종 건립된 동상의 인물(15명)	
한말 이전	군주	왕건, 김춘추, 세종	세종, 광개토왕, 김춘추	세종
	무신	강감찬, 최무신, 이순신, 을지문덕, 김유신, 권율	이순신, 을지문덕, 김유신, 강감찬, 계백, 윤관	이순신, 을지문덕, 김유신, 강감찬
	문신, 학자	최충, 문익점, 정몽주, 정약용, 이황, 이이, 김정호		이이, 정몽주, 정약용, 이황
	여성	유관순, 신사임당		유관순, 신사임당
	종교	사명당, 원효	사명당	사명당, 원효
	문화 예술	김정희, 김홍도		
한말 이후	한말 항일	최익현, 민영환		
	동학농민	손병희, 전봉준		
	종교	김마리아		김대건
	일제하 독립운동	이준, 안창호, 안중근, 윤봉길, 이강년, 허위, 김좌진, 김구, 이상재		윤봉길

* 자료: 《서울신문》, 1964년 5월 14일자 각 동상 건립 일에 발행된 신문

이러한 변화는 인물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1차 년도에도 동상 건립 순서가 일부 바뀌었다. 제2차로 건립할 동상 인물의 선정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제2차 년도의 동상 건립 대상자였던 윤봉길과 유관순의 동상은 3차 년도에 건립되었다.⁴⁹⁾ 동상과 헌납자를 연계하는 것도 계획과 달라졌다. 동상의 인물 선정과 건립 과정에는 다양한 외압이 작용했다.⁵⁰⁾

<표 1>과 같이, 동상은 규칙적으로 건립되지도 않았고, 그 수량도 일정하지 않았다. 본래는 1967년 10월 21일에 이순신의 동상이 건립될 계획이었다.⁵¹⁾ 이순신의 동상이 세워진 곳은 이승만의 동상이 세워질 뻔 했던 곳이었고, 바로 직전에는 세종의 석고상이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제막식은 다음 해로 연기되어 이순신의 탄신 제423돌을 하루 앞둔 1968년 4월 27일에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이순신 동상의 외형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었다.⁵²⁾ 박정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각별한 애정을 표했던 동상이 고증 논란에 휩싸이자 1967년 9월 28일에 완공된 세종의 동상과 11월 초순 완공된 사명당의 동상 제막식은 순연될 수밖에 없었다. 인물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이 운동이 시행되는 동안 위원회와 제작자들의 계속된 고민거리였다. 초상화나 영정이 없는 인물들은 필연적으로 재현의 문제에 봉착했다. 역사학자를 비롯하여 학계의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나, 인물의 생존 시대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고, 동상 제작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고증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⁵³⁾ 심지어 박정희에게 역사적 고증의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였다.⁵⁴⁾

1971년에 동상이 건립되지 않은 것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효과가 축소될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⁵⁵⁾ 동상의 제막일은 박정희 정권에게 각

49) 《서울신문》, 1968년 4월 29일자

50) 윤범모, 앞의 글, 45쪽, 정관모, 『기념비적인 윤목』(대원출판사, 1980), 83쪽

51) 《서울신문》, 1967년 9월 23일자, 1967년 9월 1일자

52) 이순신에 관한 고증 논쟁은 한국전쟁 시기에 동상이 건립될 때에도 있었다. 최석남은 동상이 건립된 당일 「고증부재, 이충무공 동상과 거북선」이라는 글을 《동아일보》, 1968년 4월 27일자에 투고했다. 그는 「충무공동상건립의 의미와 문제점」이라는 글을 《사상계》(1968년 6월호)에 실기도 했다. 이순신의 동상은 고증 논쟁을 일소하지 못하고 제막되었다. 유사한 논란은 1977년에도 재연되어 동상 해체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53) 사명당과 을지문덕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서울신문》, 1967년 10월 24일자, 1969년 10월 9일자.

54) 이에 박정희는 “그래도 선현을 많이 닮은 것은 그 후손들일 것이므로 후손들에게 갖을 써우고 수업을 단 뒤 공통점을 발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서울신문》, 1970년 10월 20일자.

별한 의미가 있는 날의 전후로 배치되었다. 1968년과 1972년에는 ‘5·16’의 의미가, 1969년에는 ‘광복’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1970년에는 10월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1969년 10월 17일에 3선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각인할 필요가 있는 기념일 혹은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 동상의 제막식을 거행했다. ‘동상건립운동’은 박정희 정권 중반기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저항을 억누르고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해 실시된 가시적 이벤트의 성격을 지녔다. ‘동상건립운동’의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성장률이 높았다가 점차 둔화되어 발전국가의 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⁵⁶⁾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는 안보 및 통치위기를 고조시켰다.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제압하기 위해 유신체제의 맹아가 태동하고 있었다.

V. 동상 인물의 담론과 건립 효과

1. 동상의 인물에 부여된 담론

동상의 인물들은 과거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각자’로 호명되었다. ‘선각자’ 앞에는 “이 민족의 역사 있는 뒤로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이라는 수식어가 첨가되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지칭하는 국민국가의 형성에 이용된 역사의 시발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준다. 이 논리에 따라 동상의 인물들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국민국가의 기원을 삼국시대에 두었으나 백제 및 삼한과 후삼국 시대의 여러 국가들은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상이 건립된 이유와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이 주입한 지배담론들은 《서울신문》의 기사와 사설에서 잘 드러난다.⁵⁷⁾ 동상 인물들의 행적과 활동은 박정희 정

55) 1971년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은 교련반대 시위, 첫 주한미군 철수, 제4대 대통령 선거, 서울대3개 단과대학에 휴업령, 사법파동, 광주대단지 사건, 인천 실미도 북파공작원 사건, 서울에 위수령 발동, 국가비상사태 선포, 첫 민방공훈련 실시, 서울 대연각 호텔화재사건, 국가보위법 변칙 통과 등이었다.

56) 김일영, 앞의 논문, 354~355쪽.

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 및 강제하는 담론으로 귀결되었다. 전재호에 따르면, '동상건립운동'이 전개될 때는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의 시기(1964~1971)"에서 '군사주의, 반공, 경제발전, 민족통일'의 담론이 강조된 후기(1968~1971년)와 "국민총화의 시기(1972~1979)"에서 '총력안보', '국민총화', '총화단결' 등 국내외적 안보와 관련된 담론들이 강조된 초기에 해당된다.⁵⁸⁾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이 역설한 지배담론은 민족중흥, 경제건설 및 근대화, 반공, (자주)국방, 승공(민족)통일, 국민총화, 청빈, 총력안보 등이었다. 이 담론들은 '동상건립운동'을 추진한 위원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국'을 위한 실천 지침이자 이념이었다. 담론들은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한 과제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 곧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담론들은 당시를 국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국난의 극복 주체는 선각자인 박정희와 그를 필두로 한 군사정권이었다. 군사정권에 대해 항거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은 국난 극복을 저해하는 반 애국적 행위와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국난 극복을 위한 핵심적 과제는 경제적 근대화와 승공 통일에 두어졌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총화 단결할 것과 반공으로 무장한 총력안보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는 논리의 연쇄 구조가 제시되었다.

<표 3>과 같이, 인물들의 담론은 동상을 건립한 해의 정세와 인물의 행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부여되었다. 제 차와 제 차 년도 사이에는 인물에 부여된 담론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즉, 1968년에는 민족중흥, 경제건설, 근대화, 반공, (자주)국방 등의 담론이 제시되었으나, 1969년부터는 승공(민족)통일, 국민총화, 총력안보 그리고 청빈 등의 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1968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안보위기가'가 주요했다.⁵⁹⁾ 1968년에는 청와대 기습사건,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미 정보기 EC-121기 격추 사건, 울진·삼척지역 북한 무장 게릴라 침투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향토예비군 창설', '국민교육헌장 선포' 등

57) 《서울신문》은 동상 제막이 임박한 무렵에 홍보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동상 제막 당일에는 사설을 통해 건립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972년에 마지막으로 건립된 동상 2기에 대해서는 사설이 없었다.

58) 전재호, 앞의 논문(1997), 53-59 쪽

59) 배궁찬, 「1970년대 전반기의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백산서당, 1999), 18~25 쪽

이 이루어져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여기에 1969년 1월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이 발표되자 자주국방, 통일, 국민총화의 담론이 중요하게 부상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 정세를 ‘위협받는 조국’으로 설정하여 국민적 위기의식을 고양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들을 동상의 인물들에게 부여했다.

<표 3> 동상에 투사된 박정희 정권의 담론

건립 시기	인물	민족 중흥	경제 건설 (근대화)	반공	(자주 국방	승공 (민족 통일	국민 총화	청빈	총력 안보
제1차 (1968년)	이순신	○	○	○	○				
	세종	○	○						
	사명당			○	○				
제2차 (1969년)	이이		○	○		○	○	○	○
	원효		○			○			
	김유신					○			
	을지문덕					○			
제3차 (1970년)	유관순			○		○			
	신사임당		○						
	정몽주			○	○	○	○		○
	정약용	○	○						
	이황							○	
제4차 (1972년)	강감찬	○	○	○	○	○			○
	김대건		○						
	윤봉길		○						

※ 자료: 《서울신문》의 기사와 사설을 이용하여 구성함.

동상의 건립 시기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인물들에게 부여된 담론은 ‘경제건설’과 ‘근대화’였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담론으로 다른 담론을 유출해내는 출발이자 전제였다. 통일담론은 제2차 년도부터 등장했으나, 문인과 무인, 인물들이 활동하던 시기, 성별을 막론하고 거의 모두에게 투사되었다. 인물들에게 통일담론이 투사된 것은 다소 늦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동상건립운동’이 표방된 해인 ‘광복절 21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의 성취가 역사적 책임’임을 강조하

고, '통일의 시일은 자립경제 건설과 근대화 작업이 대충 완료되어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을 때'임을 즉, '선 건설 후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인물들에 부여된 담론들은 인물마다 차이는 있으나, 동상 건립이 추진된 차수 별로 일정하게 분담하거나 중복시킴으로서 강조되었다. 이를테면 제1차 년도에는 이순신에게, 제2차 년도에는 이이에게, 제3차 년도에는 정몽주에게, 제4차 년도에는 강감찬에게 많은 담론들이 부여되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 충신과 반공, 자주 국방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는 점이 공통된다. 인물들에 부여된 담론들은 연쇄적인 논리 구조를 띠고 있었다. 이를테면, 경제건설과 반공, 통일 담론의 계열, 반공과 자주국방 담론의 계열, 반공과 통일, 국민총화 혹은 총력안보 계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총화와 총력안보의 담론은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총화가 집중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1972년 이전에도 제시된 바 있었다. 청빈 담론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관료들에게 더 적합한 것인데도 1970년까지 간헐적으로 거론되었다. 이상의 담론들은 전반적으로 1968년 12월 5일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담론들과 거의 일치한다.⁶⁰⁾

2. 동상의 건립 효과

'동상건립운동'은 박정희 정권이 애국주의 담론을 설파하기 위해 활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였다. 박정희시대에서는 국가채건운동, 성역화사업, 선현영정 제작, 국민교육헌장 제정, 새마을운동, 국가의례의 창출과 이벤트에 대중동원, 위인전 읽기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동상건립운동'의 효과를 따로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동상건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주로 서울의 도심에서 진행되었고, 이 운동이 전개될 때의 사회구성원들이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그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상건립운동'의 성과와 효과는 몇 가지 현상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인된다. 건립 당시 각 동상의 인물들에게 부여된 담론은 이미 오랜 전에 희석되었

60) 황병주,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역사문제연구』 제5호 역사비평사 2005).

다. 그러나 효용성을 상실한 다른 시설물들이 쉽게 해체 혹은 변형되는 것과 달리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 동상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역할이 두드러진 것은 이순신과 세종의 동상이다. 이 동상들은 건립 당시의 담론에서 탈구되어 있으나, 국가 정책적으로 혹은 특정 집단들의 이념과 행동의 정당화 혹은 홍보 도구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독도의 소유권’ 문제로 한창 달아올랐을 때 정치인들이 “역사 교육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없는 초등학교에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집단적으로 제기한 것은 동상들이 지닌 효과가 지속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⁶¹⁾

‘동상건립운동’이 추진된 이후 초등학교 교정에 동상이 광범위하게 건립되었다는 점도 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문교부 또는 문공부의 지시로 초등학교에서 동상 건립이 이루어졌다는 공문서는 찾을 수 없었다.⁶²⁾ 그러나 ‘동상건립운동’이 전개된 직후 또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초등학교 교정에 동상이 일시에 건립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⁶³⁾ 초등학교에서의 동상 건립은 유행처럼 이루어져서 어느 순간 동상은 학교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다. 동상의 건립비용은 육성회장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은제의 연구(2006)가 보여주듯이, 동상 건립은 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⁶⁴⁾ 그러나 ‘동상건립운동’의 대상이 된 인물들이 모두 초등학교에서의 동상 건립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동상이 건립된 인물들은 이순신, 세종, 이승복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이 인물들은 박정희가 호감을 갖고 국가적 기념사업을 전개했거나, 반공 이데올로기로 상징화된 인물과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조사⁶⁵⁾에서 이순신과 세종이 선순위를 점하는 선호도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상건립운동’의 효과를 특정 인물들이 아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61) 《무등일보》, 2005년 3월 19일자

62) 초등학교에 동상이 건립된 배경과 계기, 참여기제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실 조사를 필요로 하며, 지역에서의 동상 건립에 ‘강압’과 ‘동의’가 어떤 방식과 수준에서 작동했는가가 분석되어야 한다.

63) 문화공보부가 1973년 10월 23일에 작성한 「선현 동상 및 영정 등급 분석」에 의하면, 전국에 총 352기의 동상이 있었다. 동상은 대부분 학교에 있었고, 재질은 거의 시멘트였다. 동상의 인물 가운데 이순신이 255기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종의 동상이 많았다.

64) 신은제, 앞의 논문, 128~132쪽.

65) 전재호, 「동원된 민족주의와 전통문화정책」, 『박정희를 넘어서』(푸른숲 1998), 254쪽. 최연식, 「박정희 시대 근대화 담론 속의 전통」, 『전통과 현대』, 제22호(전통과 현대사 2002), 36쪽.

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이 운동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또는 강제하려 한 애국주의 담론들의 전달 매체와 구조가 갖추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담론의 전달 구조는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주로 형성되었는데, 특히 신문의 역할이 컸다. 서울신문사가 이 운동의 핵심적 추진 주체였다는 점도 신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특정 신문사가 이 운동을 주도함으로 인해 다른 신문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들 간의 차이는 각 신문들이 '동상건립운동'을 기사화한 규모와 지속성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 운동 초기에는 모든 신문들이 관련 내용을 크게 보도하였다. 물론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과 방법은 크게 두드러졌다. 《서울신문》은 동상 제막을 축하하는 광고까지 게재하여 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문들의 보도 형태는 제1차 년도에서만 발견된다. 제2차 년도부터는 언론의 보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제막식은 대통령이 주빈인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의 보도를 생략하거나 일단 기사로 다루는 신문들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장악력을 감안한다면, 신문의 이러한 보도 형태는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서울신문》에서도 관련 기사 수가 줄어들고, 최소화되었다.

신문 및 방송과 다른 담론의 전달 매체로 잡지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에 발간된 잡지들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동상건립운동'을 다룬 글들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동상건립운동'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나마 어렵게 발견한 글에서도 '동상건립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⁶⁶⁾ 이와 같은 현상들은 '동상건립운동'의 담론과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와 구조가 원활하게 형성 및 작동되지 않았고, 취약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동상의 인물들에게 부여된 지배담론의 적절성 여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동상의 인물들이 그나마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생소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적 인물들을 현재로 불러내어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은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인물들의 현재화도 어려운 일이지만, 각 인물들에게 다양한 지배담론을 결부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동상의 인물들에 부

66) 박용숙은 '동상이 서구 추종적이어서 전통 예술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애환과는 거리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박용숙, 「동상예술론」, 《세대》 1970년3월호.

여된 담론들은 과잉이었고, 연계성이 극히 낮았으며, 일회적이었다. 따라서 담론의 수용자들에게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배 담론의 설파에서 그나마 기여를 한 인물은 이순신과 세종이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상의 인물들은 “서울에 있는 애국선열조각상의 경우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이미 우리 국민들의 관심 밖의 인물이 선정됨으로서 아무런 구심점 역할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주장⁶⁷⁾과 ‘동상의 인물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삶과 무관하게 박정희 정권에서 호출되었고, 오늘날 이 동상들의 존재는 거의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⁶⁸⁾가 말해 주는 것처럼 기대를 벗어났다.

셋째, 건립된 동상이 위치한 장소와 공간이 어디였으며,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통해서 이 운동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던 도심에 세워졌던 동상들은 공원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시선이 모이지 않은 곳으로 이전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있던 김유신과 유관순의 동상들로 건립 후 3년도 안되어 남산어린이 놀이터로 옮겨졌다. 도심에 있던 다른 동상들의 일부는 공원으로 이전되었다. 교통망의 발달과 도심의 개발은 동상들의 이전을 촉진시킨 주요 요인이었고, 장소가 지닌 가시성을 약화시켰다. 동상에 투사했던 지배담론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었다면, 공원에 있던 동상도 도심으로 진출했을 것이다. 이때 건립된 동상들 가운데 오늘날 시민들의 시선을 끄는 곳에 위치한 것은 몇 개에 불과하다.

넷째, 동상에 부여된 담론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달하려 한 담론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다. 과거의 인물들을 경제건설이나 반공, 총력안보 등의 담론과 연결시켜 사회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다.

이와 대비적으로 동상 담론의 수용을 보다 심각하게 차단한 담론들이 있다. 1970~1980년대 초등학교생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동상괴담’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괴담은 권위와 두려움의 이미지를 가진 동상을 대하는 수용자들의 솔직한 심정으로 이해된다. 이는 동상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지배담론을 설파하려는 전략

67) 김정수, 앞의 논문 7쪽

68) 신경호(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면접조사, 2007년 3월 5일

을 차단시키거나 담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초등학교 교정에 있던 동물상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있으며, 쉽게 다가가 접촉할 수 있어서 친근함의 대상이 되어 괴담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이순신과 세종의 동상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박정희 정권이 강제했던 담론과 달리 '극알과 '자공심'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이순신 동상의 제막식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다. 제막식장을 둘러싸고 있는 무장한 군인들은 구경하는 시민들을 향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동상 앞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도열해 있다. 이들은 애국가 및 이순신 장군의 노래 제창과 박수 부대로 동원되었다. 제막식을 보도한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제막식의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3부 인사들을 포함하여 200여 명에 불과했다.

박정희시대의 '동상건립운동'은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배 체제가 안정적이고 수월한 통치를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기념사업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국가의 주도성이 미약했으나, 박정희시대에는 국가가 동상 건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따름이다. 동상의 건립 문화는 일제하에서부터 통치체제와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실행되어온 것인데, 박정희시대에 들어 그 의미와 효과를 활성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동상의 건립을 '운동'으로 명명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동상이 건립되는 방식은 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을 두지도 않았고, 박정희시대에 일상적으로 활용되었던 대중동원의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다. '동상건립운동'은 '5·16' 가담자들이 전면에서 이끌어 가고,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예술인, 지식인 등이 주체로 가담하여 추진되었다. 즉, 사회구성원들과 유리된 지배 체제만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동상의 인물들은 생존한 시기 및 활동과 무관하게 모두 애국자이자, 선각자로 호명되었다. 동상의 인물들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선정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어떤 기준과 조건에 따라 선택했는지 모호했다. 아울

러 년차별 동상의 건립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고, 단기적으로 발표된 계획마저 바뀌는 등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 동상들은 ‘5·16’, ‘광복’, ‘3선 개헌’의 기념일에 맞추어 제막되었다. 이는 ‘동상건립운동’이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 홍보와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기념조형물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동이나 돌에 새겨진 과거 권력자의 담론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 권력자의 담론이다’라는 마일스(M. Miles)의 지적⁶⁹⁾은 박정희 정권이 ‘동상건립운동’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말해준다. 박정희 정권이 동상의 인물들에게 가장 많이 부여한 담론은 경제건설(근대화)과 승공(민족)통일이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담론들이 부여되고 있었는데, 애국주의라는 담론으로 귀결되었다. 동상의 인물들에게 부여된 담론들은 국내외의 정세와 박정희 정권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 또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변화가 보다 잘 나타나는 시기는 제1차 년도와 제2차 년도 사이였다. 한편 담론들은 동상 건립이 진행된 차수별로 특정인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인물들에게 중복시키고 있어서 선호한 인물과 강조한 담론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

‘동상건립운동’의 효과는 인물에 따라 선별적으로 나타났다. 이순신과 세종의 동상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가 정책을 혹은 특정 집단과 이념들의 전달 매개체로 활용된다. 반면 다른 인물들의 동상은 존재 의미를 거의 발견할 수 없거나, 주변화 되었다. 두 사람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동상 건립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 박정희 정권은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을 다양한 정책과 기관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교정에 두 사람의 동상들이 건립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동상건립운동’의 효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상건립운동’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첫째, 이 운동의 의의 및 담론 전달의 매개체와 구조가 체계적으로 구축 및 작동하지 않았다. 둘째, 동상의 인물들에게 부여된 지배담론의 적절성, 연계성, 지속성에서 볼 때, 핵심적인 메시지의 강조와 전달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셋째, 동상이 건

69) Miles, M., 앞의 책 105 쪽

립된 장소와 공간의 변화와 이동은 이 운동의 효과가 의미 있게 발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넷째, 동상의 모습과 담론들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권위와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와 담론의 침투가 차단되었다. 그리하여 '동상건립운동'의 효과는 박정희 정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구성원들은 '동상건립운동'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으나, 무관심과 비수용적 태도를 견지하여 결과적으로 이 운동의 효과를 축소시키거나 무화시켰다.

기념조형물은 정치·사회적 변동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독해되곤 한다. 기념조형물을 건립할 당시의 목적과 의도는 퇴색, 전도 혹은 왜곡되고,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기도 한다. 모든 기념조형물에는 다양한 정치·사회·문화적 목적과 이념이 투영되어 있기 마련이다. 현재의 시점에 보면, 박정희시대에 조직적으로 건립된 동상들은 시민의 일상생활공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건립 주체들의 의도 및 담론 부여와 무관하게 소비되거나 방치되고 있다. '동상건립운동'은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지 않은 국가적 기념사업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글은 박정희시대에 이루어진 국가적 기념사업 전반에서 '동상건립운동'이 차지하는 의미, 박정희 지배체제 유지에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수용자적 입장에서 이 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은 박정희시대 중반기 서울의 일상생활공간에 세워진 동상들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배경 하에서 누구의 주도로 어떤 방법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려 한 담론들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이 담론들이 사회구성원과 어떻게 소통을 시도했는가를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서울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무등일보》.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1999, 197~308쪽.

김문환, 「옥외 기념조각의 환경조형적 분석: 서울시내 선현동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석수, 「『국민교육헌장』의 사상적 배경과 철학자들의 역할」, 『역사문제연구』 제5호, 서울 역사비평사, 2005, 97~127쪽
- 김성식, 「동상사태」, 《사조》 1958년 8월호
- 김영나·홍선표, 「해방 이후 한국현대미술사 전개 전통과 서구미술 수용의 갈등 및 방향 모색」,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7: 문학·예술』, 서울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161~182쪽.
-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 서울: 보성각, 1998.
- 김일영, 「1960년대의 정치지형 변화」,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285~362쪽
- 김현선, 「애국주의의 내용과 변화」, 『정신문화연구』 제25권 2호, 2002, 177~205쪽
- 노영기, 「5·16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과 지식인』, 서울 선인, 2004, 107~156쪽.
- 문화공보부, 「선현 동상 및 영정 등급 분석」, 1973.
- 박강배, 「타이완 사람들의 기억과 기념」,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광주 5·18 연구소, 2005, 233~247쪽.
- 박계리, 「충무공동상과 국가이데올로기」, 『한국근대미술사학회』 제2집 2004, 139~175쪽
- 박용숙, 「동상예술론」, 《세대》, 1970년 3월호.
- 박준성,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을 찾아서(1)」, 『내일을 여는 역사』 제3호, 2006, 287~298쪽.
- 배극찬, 「1970년대 전반기의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11~66쪽.
- 서울신문100년사편찬위원회, 『서울신문100년사』, 서울: 서울신문사, 2004.
- 서울신문사사편찬위원회, 『서울신문50년사』, 서울: 서울신문사, 1995.
- 신은제, 「박정희의 기억 만들기과 이순신」, 『현대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 서울 세종출판사 2006, 97~132쪽.
- 심정수, 「현대 한국기념조각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의 선열조각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1.
- 우종창, 「『박정희 정치자금 창구』 성곡 김성곤씨의 비서 ‘미스터 아 24년 만의 고백」, 《주간조선》 1995년 5월 4일자.
- 윤범모, 「기념조각, 그 문제성의 안팎」, 《계간미술》 1980년 봄호
- 은정태, 「박정희시대 성역화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제5호, 2005, 241~277쪽
- 이경성, 「미술 60년의 문제들」, 《신동아》 1968년 10월호.

- 이수인, 「'박정희 체제'의 국가주의 담론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 호 2005, 371~397 쪽
- 이지원, 「파시즘기 민족주의자의 민족문화론: 민족문화운동과 관련하여」,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 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399~435 쪽
- 작자미상, 「선각·위인의 동상을 많이 세우라」, 《주간 희망》, 1958년 5월 16일자.
- 전우용, 「서울의 기념인물과 장소의 역사상 가로 명 및 공공부지 조형물을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 제25호, 서울: 서울학연구소, 2005, 89~122 쪽
- 전재호, 「동원된 민족주의와 전통문화정책」, 『박정희를 넘어서』 서울 푸른숲 1998, 226~263 쪽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서울: 책세상 2003.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정관모, 『기념비적인 윤목』, 서울: 대원출판사 1980.
- 조은정, 「이승만 동상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제4집 2005, 75~113 쪽
- 조은정, 「전통조소의 근대적 전개」, 『근대를 보는 눈』 서울 삶과 꿈 1999, 50~68 쪽
- 조은정, 「한국동상조각의 근대이미지」, 『한국근대미술사학』 제집 2001, 221~267 쪽
- 최석남, 「충무공동상건립의 의미와 문제점」, 《사상계》 1968년 6월호
- 최석태, 「김경승」, 『청산하지 못한 역사 1』, 서울: 청년사, 1994, 342~352 쪽
- 최석태, 「윤효중」, 『청산하지 못한 역사 1』, 서울: 청년사, 1994, 329~341 쪽
- 최연식, 「박정희 시대 근대화 담론 속의 전통」, 『전통과 현대』 제2호, 서울 전통과 현대사 2002, 35~52 쪽.
- 최 열, 「20세기 전반기 근대 조소예술의 전개」, 『근대를 보는 눈』 서울 삶과 꿈 1999, 92~126 쪽
- 최태만, 「해방 후 한국 조소예술의 전개와 현대로의 전이」, 『근대를 보는 눈』 서울 삶과 꿈 1999, 168~192 쪽.
- 황병주,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역사문제연구』 제5호 2005, 129~175 쪽
- Fujitani, T./한석정(역), 『화려한 군주: 근대 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서울: 이산 2003.
- Harvey, D./김병화(역),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 Hobsbawm, E./박지향·장문석(역),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2004.
- Jansen, M. B./장화경(역), 『일본과 세계의 만남』, 서울: 소화, 2004.
- Miles, M./박삼철(역), 『미술, 공간, 도시』, 서울: 학교재, 2000.
- Mosse, George L.,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Political Symbolism an Movements in Germany from the Napoleonic wars through the Third Reich*.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吉澤成一郎/정지호(역), 『애국주의의 형성』. 서울: 논형, 2006.

島嶼柿子文化館, 『臺灣小學世紀風華』.臺北: 柿子文化, 2004.

石原ばんがく, 『東京銅像唱歌』. 東京: 文盛館, 1911.

陣柔籍, 『臺灣西方文明初體驗』.臺北: 麥田出版, 2005.

湯本豪一/연구공간 수유+너머(역), 『일본 근대의 풍경』. 서울: 그린비, 2004.

국문 요약

한국에서는 박정희시대 중반기에 ‘동상건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동상들은 서울 도심의 일상생활공간에 주로 건립되었다. 이 연구는 ‘동상건립운동’을 주도한 주체의 구성적 특성, 소요 자원들의 동원, 동상이 건립된 인물과 건립 시기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애국주의’라는 관점에서 동상에 부여된 담론들을 검토하고, 이 운동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상 건립은 비록 ‘운동’으로 명명되었으나,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 이들과 일체화된 언론, 친일 혐의를 갖고 있는 다수의 지식인과 예술인, 그리고 정경 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경제인들의 합작품이었다. ‘선각자’로 호명된 동상의 인물들은 각 시대와 부문들에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인물들의 선정 기준과 이유는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동상들은 박정희 정권의 안정화와 정통성 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주로 제막되었는데, 중요하게 고려된 사건은 ‘5·16’, ‘광복’, ‘3선 개헌’이었다.

동상들에 가장 많이 투사된 담론은 경제건설(근대화)과 승공(민족)통일이었다. 동상의 담론은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박정희 정권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요구한 지배담론이 무엇이었는데, 알려준다. ‘동상건립운동’은 이순신 및 세종과 같은 특정 인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가적 기념사업들의 효과가 집중 및 중첩된 결과로 해석된다. 각 동상들에 투사된 지배담론의 부합성, 담론의 전달 구조와 통로, 동상의 위치와 변화, 담론의 수용 등의 측면에서 보면, 이 운동의 효과는 박정희 정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구성원들은 ‘동상건립운동’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으나, 무관심과 비수용적 태도를 견지하여 이 운동의 효과를 축소시키거나 무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 투고일 : 2007. 1. 10.

● 심사완료일 : 2007. 2. 27.

● 주제어(keyword) : 박정희 정권(Park Chung-hee Government), 애국주의 (patriotism), 동상 (statue), 선열(national heroes), 담론 (discourse)